

주일에배

오전 (1부) 8시30분 7시30분
오전 (2부) 7시30분 10시
오후 (3부) 10시 12시
오후 (4부) 12시 2시
금요일예배 (1부) 18시30분

서울 교회 1600-0688

주소: 강서구 화곡동 KBS 88체육관

Jesus Centered News

예수중심교회

2014년 6월 15일 (제746호)

주일에배

오전 (1부) 7시30분 10시
오전 (2부) 10시 12시
오후 (3부) 12시 2시
저녁예배 7시30분
수요일예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1 763-9191

주소: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봉우칼럼

환자에게는 위로가 아닌 치료다

기도원에 내려와 있는 청년이 있다. 당부가 심해서 그의 부모의 요청에 의해 기도원에 요양 차 있게 된 것이다. 그는 병 때문인지 늘 구부정한 체 매사 의욕이 없어 보였고 어두워 보였다.

어느 날, 방 한 쪽에서 구부리고 뭔가를 하고 있는 그를 발견했다. 뛰하는 거나고 물었더니, 당 체크하는 중이란다. 나는 그런 거 할 거면 기도원에서 내려가 병원으로 가라고 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와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하고 물었더니 아무것도 못한다. 나는 "너는 못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뀌라. 그러면 몸도 달라질 거야." 하며 그를 데리고 다니며 작은 일부터 시켰다. 그 후로 그는 변했다. 그는 매사 적극적인 모습으로 일했다. 그러자 등도 곧게 펴고, 우거지 밤상이던 얼굴도 환하게 변했다.

내 행동을 두고 사람들은 인정도 없다. 환자에게 심하다. 등등으로 말할 수 있다. 그러나 NO!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가 아니라 치료다. 만일 내가 그에게 "그래, 힘들지? 누워 있어라." 그랬으면 그는 여전히 병에 눌려 살고 있을 것이다. 나는 그를 치료할 목적으로 먼저 생각을 변화시킨 것이고, 생각이 행동을, 행동이 그의 몸을 치료한 것이다.

"요즘 세상이 불황이라 일이 안 돼." 이러한 자를 위로한답시고 "맛아, 너만 그런 거 아니냐. 다 그래." 하는 것은 그를 죽이는 것이다. "왜 안 돼?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잖아. 기도하고 움직여." 이렇게 치료해야 옳다.

절대 고통이 살아 되지 않는다. 영·혼·육의 환자들을 향해 어설픈 위로를 하지 말라. 비록 당시는 섭섭하고 아쉽다는 소리를 들어도 치료하라.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환자에게 필요한 건, 치료다.

은혜를 기억하면 넘어지지 않는다

김포를 출발할 때는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2시간도 채 걸리지 않아 도착한 하네다 공항은 비교적 맑은 날씨였다. 공항에는 집회를 배설한 김장길 목사를 비롯하여 일본 각지에서 지교회회를 이끌고 있는 많은 교역자들과 성도들이 나와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목사님은 도착 일성으로 '일본교회의 첫사랑을 회복시키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왔다'고 말씀하셨다.

"신앙생활이란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망각하여 멸망한다. 내가 22년 전, 두발 웃도 가지고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처음

국 각지에 27개 교회를 세웠고, 그 때 일본에 떨어진 씨가 미국 및 중국까지 퍼져나갔다. 여러분들이 그 뜨거웠던 첫사랑만 회복한다면 엄청난 역사를 이룰 수 있다. 일본이 우상을 섬기는 나라라 복을 전하기가 힘들다 하지만, 우리나라보다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엄청난 순교의 피가 떨어진 땅이다. 그들에게 주권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무라이 정신이란 DNA가 잠재한다. 곤조를 가지고 기다리라는 일본인의 근성이 분명 마지막 때 큰 역사를 일으킬 것이다."

김장길 목사는 이번 집회를 위해 전 교인에게 3일 금식을 명하고 함께 기도했다고 한다. 일본 성도들은 목사님이 방

소 목사는 대기록이라고 놀라워했다. 목사님도, "지금은 현장에서보다 인터넷으로 은혜 받는 사람이 더 많은 시대에 살고 있다. 내가 100만 성도 앞에서 설교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기도했었는데, 파라과이에 갔을 때, 방송설교를 통해 300만이 시청하는 역사가 있었다. 인터넷을 활용한 광고와 전도를 지속한다면 분명 일본 교회에 큰 역사가 있을 것이다."라며 크게 기뻐하셨다.

목사님은 일본 예수중심교회 창립예배를 통하여 안수집사, 권사, 집사 등 직분자들을 세우시고, 일본 교회가 부흥 성장해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신 덕목들을 가르쳐주었다.



일본 동경 세미나 광경

일본을 방문했을 때의 기억이 생생하다. 한 끼에 117만원이나 하는 음식을 양권사가 준비했지만 나는 교회에서 성도들과 비빔밥을 먹으려 했다. 그러나 이미 예약을 해놓은 상태라 안 먹어도 돈을 내야 한다는 말에 어쩔 수 없이 갔던 기억. 또한 스텔라 부부가 준비한 하룻밤에 600만원이나 하는 프레지던트 룸을 마다하고 교회 성전에서 밤새도록 모태도는 소리에 잠을 못자고 기도했던 기억. 신주쿠 역에서 짧은 일본어로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복음을 전했던 기억, 우에노 공원에서 노숙자들을 먹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기억 등 그런 역사들을 통해 우리는 일본 전

문화자 그들의 활약상을 간증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시간만 있으면 목사님을 찾아오거나 목사님 앞에 앉아 어린 아이처럼, 그들의 신앙 간증을 쏟아내었다. 목사님으로서야 제자들이나 영적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다는 이야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을까?(관련기사 4면) 인터넷으로 목사님의 집회 동영상을 접하고 은혜를 받은 일본인 아소 목사는 김장길 목사에게 연락하여 이번 집회를 직접 인터넷으로 생중계하겠다고 말했다. 보통 400에서 많을 때는 7-800명이 접속한다는 그 방송에 집회 첫날 4,700여 명이 접속하는 역사가 나타났다. 아

"목사는 큰 자가 되기 전에 깨닫힌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고객은 서비스가 좋아질 때까지, 음식 맛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성도들도 목사가 설교 잘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정직해질 때까지 절대 기다리지 않는다. 그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천국의 키워드다."

비록 짧은 일정이었지만, 이번 방문을 통해 일본 교회가 첫사랑을 되찾고 지속적인 부흥과 성장을 계속해 가리라 확신한다.

한은택 전도사

henry8829@naver.com



하네다 공항에 영접 나온 일본 교역자 및 성도들



일본 예수중심교회 창립예배



목에 김소환 여인이 인수를 받고 교침을 받았다



왜 하...님의 자녀들이 복을 받지 못할까?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 (말1:1~14)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을 받지 못할까요?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이 왜 복을 받지 못하고 가난 속에서 헤매고 있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압니다. 그것은 기본에 충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본의 으뜸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뵙는 일입니다. 예배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는 크리스천의 가장 기본 덕목이고, 십계명 중의 제4계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게 됩니까? 주 5일제가 실시되면서 금요일이면 꼬박꼬박 싸들고 해외로, 관광지로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아예 주일을 제쳐버리는 자들도 있고, 그나마 양심상 집 다 싸들고 교회 왔다가 축도 하기 전에 눈도장만 찍고 나가버리는 자들도 있습니다. 물론 놀러갈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올바른 자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을 만난다면 모든 약속 다 파하고 온갖 수선을 뿔 텐데, 만왕의 왕을 뵙는 일을 이처럼 대수롭지 않게 여기니, 이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지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요?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신 분이요(잠8:17).

여러분, 예배의 성공이 곧 인생의 성공입니다. 그 샘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일천 마리의 소로 일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지혜와 부유가 넘쳐도록 하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안에 거했던 까닭도 여호와께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에 자기의 몸이 드러날 정도로 여호와 앞에서 뛰고

니에 동냥하듯 천 원짜리 던져놓고 가는 당신, 와서 딴 생각이나 하고 시간이나 때우는 당신의 예배를 하나님은 거부하십니다. 물론이고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말1:10). 이유인즉 이렇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기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말1:7).

구약시대에는 예배드리는 장소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의 원형이 아닌 예수님이 오

곳은 창세기 14장 20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고 돌아오는 길에 벨기세렉에게 노획물 중 좋은 것으로 십분의 일을 드려 그로부터 축복을 받았습니

다. 이는 히브리어 7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십일조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네 소들의 1/10을 내면 내가 복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 개를 준 다음에 한 개를 내라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십일조는 하나님의 경제원리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면 손실과 이익을 알게 됩니다. 손실이 있는

부분은 버리고, 이익이 남는 부분에는 더욱 투자하면 됩니다.

하늘의 문을 열고 싶습니까?



총회장 이초석 목사

로 말미암아 어디서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렇게나 예배를 드려도 좋다는 말은 아닙니다. 더욱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예배에 늦지 말라는 어머니의 유언을 지켜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된 링컨처럼, 본 교회 출석과 교회에 제일 앞좌석에 앉으라는 어머니의 유언을 지켜 당대 최고의 부자가 된 록펠러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십일조와 첫열매도 크리스천의 기본행목입니다. 십일조란 말 그대로 수입의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는 만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왜 ‘십일조를 떼어먹었다’고 하지 않고, ‘도적질했다(말3:8)’ 하셨는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곧 십일조를 드리는 것은 이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십일조’라는 말이 처음 성경에 나오는

곳은 창세기 14장 20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고 돌아오는 길에 벨기세렉에게 노획물 중 좋은 것으로 십분의 일을 드려 그로부터 축복을 받았습니

다. 이는 히브리어 7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십일조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네 소들의 1/10을 내면 내가 복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 개를 준 다음에 한 개를 내라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십일조는 하나님의 경제원리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면 손실과 이익을 알게 됩니다. 손실이 있는 부분은 버리고, 이익이 남는 부분에는 더욱 투자하면 됩니다.

일본의 심원석 목사가 노숙자를 상대로 목회를 하면서 십일조를 드리지 않고 있었습니

다. 그랬더니 그 후로 동경에 있는 미군 부대에서 노숙자들을 위한 모든 물품을 풍족하게 대주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십일조는 현대판 선악과입니다.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듯 십일조를 하건 안 하건 자유입니다. 그러나 선악과가 꼭 지켜야 할 것이었듯, 십

만고의 진리는 심은 대로 난다는 것이다

일조도 꼭 지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십일조는 풍작을 기원하는 부(副)의 종자입니다.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난 청교도들은 오랜 항해로 먹을 것이 떨어져 사람들이 죽어가고, 자식이 눈앞에서 굶어 죽어가고 절대 종자만은 먹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자를 먹어버리면 다 죽기 때문에 끝까지 지킨 것입니다. 그래서 신대륙에 도착한 후 그것을 심어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십일조는 구원과는 별개이지만, 그것이 축복의 종자요, 은혜의 종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 종자를 하늘나라에 심어야 합니다. 미국의 록펠러 재단이 미연방재정의 16%를 차지하는 막대한 세금을 낼 정도로 부를 축적하고 있는 것, 유대인들이 세계 금융계를 주름잡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지가 새끼 낳은 것까지는 드러는데, 소가 새끼를 낳으면 못 드립니까. 왜요? 아까워서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첫열매에 관해서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집을 세 포도즙이 넘치리라’(잠3:9~10). 세상 사람들도 첫 월급 타면 부모님에게 빨간 내복을 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를 받으신 하나님이 기뻐하고 대견해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부자가 되는 일을 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말씀드린 예배의 성공과 십일조와 첫열매입니다. 이를 실천할 때 하나님이 우리 삶을 부유케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일조는 현대판 선악과다 따먹을 것인가 지킬 것인가

춤추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여호와를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찌니라”(요4:24)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세입니다. ‘신령과 진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가인이 예배를 드리지 않아 하나님이 미워하신 것이 아닙니다. 가인도 분명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습니다. 왜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진 것을 예배를 드렸지만, 가인은 자기의 생각대로 땅에서 거둔 것으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뜻대로 영적 예배를 드렸지만, 가인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찔리지 않습니까? 아내에게, 혹은 부모에게 끌려 교회에 어쩔 수 없이 오고, 현금 바구

153 선교 및 구제 후원금 안내

ARS (5,000원)

(060)700-0688

은행 계좌 안내

농협 1379-01-001903

국민은행

695001-01-122494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객원칼럼::

::생각해봅시다::

구관이 명관인가?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이나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전7:10).

즉 “구관이 명관이다. 지금보다 그때가 좋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는 뜻이다.

흘러간 물은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 즉 과거는 현실적 삶에 큰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다. 그냥 과거일 뿐이다. 민수기 11장 5~18절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만 먹는 것에 불평을 한다.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고, 더 재미있었다.” 하나님은 이 말을 들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 고기를 배불리 먹게는 하셨지만, 큰 재앙으로 처서 수없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었다.

우리나라도 50여 년 전 정권 때가 좋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가끔 만나게 된다. 그 소리를 들을 적마다 답답한 생각이 든다. 사실 그 시절은 별 자유도 없는데다 국력은 최하위 권이었고, 먹을 것도 변변치 않았으며, 게다가 화장실 휴지, 생리대, 비닐 같은 것은 상상도 못하던 시절이었다. 아이들 뱃속에는 회충이 우글거리고, 이가 온몸에 득실거리며, 웃이나 신발이나 병원이나 어느 것 하나 여유가 없던 시절이었다. 일 년에 몇 번 목욕으로 족하던 그 시절로 과연 돌아가고 싶을까? 그때가 정말 더 좋았을까? 아니면 현실을 꾸짖는 것은 공허한 말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

이전의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조장님이, 부장님이, 사장님이 더 좋았다고 하는 사람은 지혜롭지 못하다. 지금 내가 만난 사람과 새롭게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한다. 지

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나 지금 환경이 조금 서글거나 미숙하더라도 현실을 붙잡아야 한다. 과거에 붙잡혀서 정말 소중한 오늘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신혼 때가 더 좋았다’ 된가, ‘우리교회 초창기 때가 더 좋았다’ 하지 말라. 지금은 더 좋은 때다. 과거는 추억일 뿐이다. 과거는 추억으로, 경험으로 족하다.

과거 지향적으로 살면 안 된다. 발전이 없고 퇴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래지향적으로 살아야 한다. 지나간 시절은 절대 다시 오지 않는다. 내일만이 내게 다가올 뿐이고, 기회를 준다. 눈을 들고 앞을 보라. 미래를 바라보고 오늘을 붙잡아라. 그 사람만이 사막 같은 삶에 강을, 광야 같은 삶에 길을 낼 수 있어서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게 된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사43:18~19).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꾀대를 향하여... 쫓아가노라”(빌3:13~14).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히10:38).

과거의 사슬에 매어 있지 말고, 어떤 일이든지 끊어내야 한다. 강을 건넌다면 뱃목을 버려야 한다. 그때가 더 좋았던 것이 아니고, 지금은 더 좋다. 구관이 명관이 아니라 신관이 명관이다.

이시대 목사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

이 글은 1992년 가이드포스트지에 게재되었던 것으로, 당시 미국 국무장관을 지낸 콜린 파월에 대해 썼습니다.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자마이카 이민 2세입니다. 그의 부모는 뉴욕 사우스 브롱스 지역 피복제조 공장 출하 직원, 재봉사로 일하였고 가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는 장로 권사로 일할 만큼 독실한 성공회 교인이었습니다. 이런 부모의 신앙 교육을 받은 콜린은 뉴욕 빈민가에 난무하는 마약, 폭력, 범죄의 유혹을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콜린은 17세 때 시간 당 90센트를 받고 음료수 공장에서 바닥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였는데, 누가 보든 안 보든 열심히 하였습니다. 다음 해 그 공장 관리자는 콜린을 최우선으로 뽑았고, 그가 하고 싶어 하던 음료수 담는 기계에서 일하도록 배려하였으며, 그 다음 해에는 부 실장으로 승진시켜 주었습니다. 콜린은 이때부터 ‘나는 모르지만 누군가는 나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콜린의 중고등, 대학교 성적은 C급이어서, 법대, 의대 등 인기 학과에 진학을 포기하고, ROTC를 지원하여 군대로 나갔습니다. 군대는 그의 적성에 맞았고, 그는 맡은 바 책임은 철저히 완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군대라고 하여도 배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고, 1963년 캔자스 주 레본워스에 있는 군지휘참모대학에 입학, 1,244명 중 2등으로 졸업하였습니다.

콜린이 월남전 최전방에서 근무할 때, 그의 사단장은 그의 졸업 성적을 보고 그를 작전 참모로 불러 들였습니다. 그는 이 때 다시 한 번 ‘나는 몰라도 누군가는 내가 하는 일을 보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월남전 참전 후, 그는 1969년 조지워싱턴대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후 그는 계속하여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자신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20년 군 생활을 하던 중 웨스트포인트 정규 미국군사관학교 출신이 아님에도, 1989년, 지금 부시 대통령의 아버지 부시 대통령의 명으로 미합참의장에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이 때 또 다시 ‘아,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더욱 확실하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특히 콜린은 그가 세례 받을 때, 목사님이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오, 주여, 이 아이를 보호하시고, 주님의 은총을 받고, 주님의 성령 안에서 자라나, 마침내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하소서. 아멘!” 하였던 그 기도를 잊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교회에서 이 기도 소리를 들을 때마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나를 지켜보고 있구나!’ 라고 느꼈으며, 더 열심히 잘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살아왔다고 합니다.

누군가 지금도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중심편집실

::성경에세이::

네 안에 잠자는 예수를 깨워라

아들아!

너는 나를 참 많이도 닮았다. 그래서 한 편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녀석이 뭔가는 이루겠구나 싶단다. 왜 그런지 아니? 네 안에 내가 있기 때문이다.

아버는 네가 네 안에 잠자는 나를 깨웠으면 한다. 네 안에 내가 있단다. 아비 말이다. 네 안에 아비에게 있는 도전정신과 용기, 패기, 열정이 있단다. 그런데 그것들이 잠자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구나. 그러나 그것을 깨우면 너는 분명히 아비 이상의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성공과 승리의 재료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잠자고 녹슬고 있다는 거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자기 안에 엄청난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능력과 잠재력을 잠재우고 세상 탓, 환경 탓만 한단다. 누구에게나 잠재된 능력은 있다. 다만 사장되고 있는 것이지.

성경 속의 인물인 기드온은 스스로를 ‘제일 작은 자’(삿6:15)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자신을 과소평가한 게지. 그래서 그런지 기드온은 믿을 넓은 곳에서 타락하지

못하고 미디안 족의 눈을 피해 좁은 포도주 틀에서 타작할 정도로 소심했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를 통해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코자 하셨지. 그러면서 하나님이가 가장 먼저하신 것이 뭘 줄 아니? 기드온 속에 잠자고 있는 하나님을 깨우는 거였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했거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삿6:12). ‘네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 너에게 불가능은 없다.’ 이 말이다. 기드온은 자신 안에 잠자던 하나님을 깨워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가 미디안을 전멸시켰단다.

아들아!

네 안에 는 나도 있지만, 그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신단다. 그러나 아무리 크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랴 할지라도 그 분이 주무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 네 안에 잠드신 하나님을 깨워라.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느니 믿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니 그의 일

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네 안에 있는 하나님을 깨우면 네 안에서 그 분이 일하실 것이고, 결국 큰일을 이룰 수 있다는 말씀이란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광풍이 일자 두려워서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운 것처럼, 네 안에 있는 하나님을 깨워라. 그러면 네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네게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네게 불가능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네 안에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임을 잊지 말고, 그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하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요일4:15).

“성령을 소멸치 말라”(살전5:19).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눅18:27).

朋友



귀를 기울이세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복음주의 목회자인 존 비버가 젊은 시절 한 교회 담임목사님의 직속직원으로서 일하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그는 그 자리에서 일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교회와 목사님에 대해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고, 예배 시간에 목사님의 설교도 전혀 은혜가 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나 공공하심을 느끼지 못하던 어느 날, 성령께서는 존에게 그의 고등학교 시절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존의 집 앞에는 목요일 새벽에 스레기차가 오기 때문에 수요일 밤이면 스레기를 내다놓아야 했고, 그것은 나이 어린 그의 일이었습다. 존의 어머니는 재미있는 TV 프로그램이 한창일 때, 그에게 “야야, 스레기 내다 놓았어? 지금 당장 버리고 와라.”고 말씀하셨고, 그는 “네!”하고 대답하며 일어나긴 했지만, 속에서는 온갖 불평과 불만이 끓어올랐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바로 너한테 있다! 너는 내가 보낸 교회와 목사에게 얼마나 순종은 했지만, 즐겨 순종하지 않았다!” 그는 즉시 회개했고, 며칠 후 드려진 주일예배 때, 바로 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공공하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사1:19). 당신은 어떻게 됩니까?

신학주 전도사

blessedmb@naver.com

소망의 열도는 응답에 정비레한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와 같이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와 같이니라”(학2:9)**



야마가타에서 온 이효심 집사



앞에서 교침 받은 바깥무라 미나 집사 부부

가 있다고 본다.

일본 도착 이튿날, 직접 캔 쪽으로 떡을 만들어 야마가타에서 10시간을 달려왔다는 호리 다카코(한국명 이효심) 집사는 숙소로 찾아와 목사님 옆에 붙어 앉아서 마차 오렌만에 아버지를 만난 아이처럼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었다. 그녀는 잠실체육관 철야시절에 은혜를 받던 중 1999년에 일본으로 건너와 결혼하고, 남편과 함께 현재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날마다 방언기도를 멈추지 않으며 배운 대로 귀신을 쫓고

해외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 그들의 신앙 간증을 접할 때마다 생각이 깊어지는 데 목이 있다. 그들은 직접 목사님을 만날 기회가 없어 안타까워하고 한국 성도들을 부러워하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 더 절실한 자세로 하나님을 붙들고, 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에서 보내주는 목사님의 설교 CD와 집회 DVD, 그리고 인터넷으로 접하는 목사님의 설교가 그들의 신앙 감명을 식혀주는 유일한 도구인 셈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만 붙들게 되는 것 같았다.

한 때는 뜨거운 첫사랑으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며 간증으로 입에 거품을 물던 우리 성도들, 언제부턴가 매너리즘에 빠져 ‘나도 그랬었지’ 하는 과거의 영광에만 취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

하니까 처음에는 남편이 왜 이러 시끄럽고 자꾸 화를 내는 거냐며 투덜댔었다고 한다. 방언기도 소리와 귀신 쫓는 모습에 시끄럽고 자주 화를 낸다고 생각했노다. 그러나 이제는 차탄 다도 먼저 찬양을 불러달라고 한단다. 그녀는 MP3에 목사님 설교와 찬양을 녹음해서 늘 가지고 다니며 듣고 기도한다. 특히 천동벼락이 칠 때면 과수원에 나가 목사님의 찬양을 틀어놓고 예수 이름으로 ‘가라, 가라’ 하고 명령하면 과수원에서 기르는 복숭아, 사과 등 과일들이 너무나 잘 된다는 것이다. 또한 처음 일본에 와서 일본어를 못하니 병어리, 귀머거리가 따로 없었다. 그래서 그것도 날마다 기도했다. 입 열고 귀를 열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일본인 같은 악센트까지 주셔서 지금은 일본 사

람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는 이효심 집사는 끝으로 기도 밖에 없다고 고백했다. 기도하면 아버지가 다 들어준다는 것이다. 정말 하나님을 친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였다.

점심식사를 하러 찾은 골목의 작은 식당에서 우리는 회덮밥을 정말 맛있게 먹었다. 식당은 비록 작지만 재료를 싱싱하게 쓰고 그 맛이 변치 않으니 손님들이 끊이지 않는다고 한다. 원래 저녁에 오픈하는 식당이지만, 목사님을 대접하기 위해 낮에 문을 연 것이다. 일본 교역자들과 많은 성도들로 자리가 비좁았다. 그런데 목사님 앞에 앉은 한 여인이 암에서 고침 받은 간증을 시작하였다. 그녀의 이름은 나까무라 미나. 자궁암이 전신에 퍼져 목과 심지어 혈관에까지 암이 전이되었기로 의사는 암 4기로 진단하며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형선고를 내렸다고 한다. 이제 죽기만을 기다리는 말기암 환자였던 그녀는 복수가 차올라 산탈이 다 된 입산부 같았다. 그러던 그녀에게 김장길 목사는 살 수 있다는 소망의 주사를 놓아주며 기도해주었다. 그녀는 마지막 실낱같은 희망을 품고 부산 집회에 참석하였다. 살 수 있다는 소망, 살아야겠다는 열망을 품고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다. 그 소망의 뜨거운 열도가 응답으로 미나 집사에게 찾아왔다. 목사님께 안수를 받고 놀랍게도 차올랐던 복수가 시원한 배설과 함께 빠져나갔고, 부산에서 돌아와 병원에 가서 개복을 했는데, 암의 흔적이 모두 사라지고 없었다. 너무나도 놀란 의사는 3일간 자취를 감춰버렸다. 목사님을 만난다고 가발을 쓰고 나왔지만, 목사님은

그럴 필요 없다며 가발을 벗어보라 하셨다. 비록 짧은 머리였지만, 오히려 더욱 아름다웠다. 목사님은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히 간증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셨다.

미나 집사의 남편은 개인택시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녀는 발병하기 전에는 아로마 테라피, 네일 아트 등의 사업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는지 목사님께 물었다.

“선한 사업을 해라. 그러나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일본 교회는 한 때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었다. 그 척박한 우상의 나라에서 동경 교회는 한 때 성도 300여 명을 넘으며 성장가도를 달려갔었다. 잘 나갈 때 더욱 겸손히 낮아져 처음의 자세를 잃지 말았어야 했지만, 안타깝게도 약한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 교회는 무너지고 성도들은 뿔뿔히 흩어졌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 더욱 신앙의 깊은 뿌리가 내려졌고, 교회는 다시 일어나 견고한 터 위에 세워지고 있다.

이제 일본 예수중심교회는 험난한 시험을 통과하여 더욱 견고해진 신앙으로 새로운 부흥의 시발점에 서었다.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교회를 가슴에 새기고 서로 존중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된다면, 일본 교회는 이전의 영광보다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나타나리라 확신한다. 모두가 일본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기도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린다.

한은택 전도사

henry8829@naver.com

중독을 고치려면

::나도 건강할 수 있다::

요즘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이 과하다 못해 지나친 중독 증상으로 치닫는 실정이다. 머리를 숙이고 스마트폰에 집중하는 모습을 길거리든, 정류장 이든, 공공장소든 어디서나 발견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는 단절되고 단 한순간도 스마트폰이 손에 없으면 불안 증세까지 보인다.

이처럼 스마트폰과 같은 특정 행위에 중독될 수 있다고 하며 이를 ‘행위 중독’이라고 한다. ‘중독’이란 간단히 말해 ‘자신의 생활을 유지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떤 것에 빠지는 상태’이다.

요즘 중독 중에 게임 중독이 심각하다. 이로 인해 학업이나 직업적, 신체적, 가족적, 사회적으로 문제의 상태에 이른 자들이 많다. 게임 중독으로 인한 폐해가 지금 속출하고 있다.

그렇다면 게임 중독은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 게임 중독 치료는 중독자가 게임

에 몰입하게 된 원인을 추적하여 중독자의 상황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시작된다. 원인은 우울증이나 충동조절장애 등 정신적 문제일 수도 있지만 가족 문제인 경우도 있다. 이런 때에는 가족치료를 병행해야 한다. 원인 파악이 되었다면, 그 원인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여기에 게임 이용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가는 과정도 포함된다. 따라서 게임 중독 치료는 정신 병리적인 치료와 올바른 게임 사용에 관한 교육, 상담 등으로 의료기관과 인터넷 중독 협력기관의 협업하에 진행된다. 게임을 왜 하느냐고 물어보면 ‘할 게 없어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게임밖에 할 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게임 외에 할 수 있는 다양한 재미있는 것들을 제공해주면 좋다. 친구를 만나서 대화하며 어울려 다니고, 가족과 함께 하고, 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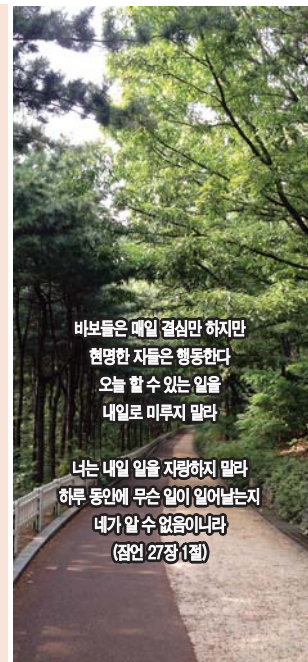
을 비롯한 다양한 취미 활동을 하게 하자.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신체 단련에 몰두하는 것도 좋고, 각종 단체 활동 등에 활발히 참여하여 정신과 육체를 건강히 가꾸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끝으로 잠자리에 스마트폰을 가져가지 말자.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므로써 잘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자. 정해진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은 건강의 기본 원칙이기도 하다.

총회장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중독은 중독으로만 고칠 수 있다.” 세상에 중독된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독 시키고, 게임에 중독된 자는 기도로 중독을 시킨다면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것이다. 당신부터, 그리고 당신의 가족과 이웃을 나쁜 중독에서 좋은 중독으로 변화시켜라.

Dr. 조희경

pearl9230@naver.com



바보들은 매일 결심만 하지만
현명한 자들은 행동한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나는 내일 일을 지령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잠언 27장 1절)